

제1차 기후위기 시대의 정원도시 세미나

기후적응 시대의 정원도시 전략

2025. 9. 23

서울대학교 교수/정원도시포럼 위원장

조경진

시작하며, 기후위기 적응 전략으로서 정원도시의 적실성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43번 “국가 기후적응 역량 강화”
주요 내용 7가지 중
‘도시기후 탄력성’ 제고

“도시열섬 완화 숲, **생활정원** 확충 등
녹색공간 조성
ESG 경영 등과 연계한 민간 참여
자연환경 복원사업 추진

정원도시는 기후적응의 한국형 해법?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2025년 9월

대한민국 정부

시작하며, 정원도시는 보편적인 기후 위기 대응 전략인가?

전 세계 기후위기 대응 의제와 전략(2025/9/8-IFLA World Council Meeting)

Circular Economy and Global Biodiversity(Ellen MacArthur Program)

Global Action for Nature and Biodiversity, Nature Based Solution(UNEP)

Urban Nature Program and Green Infra Guidance(World Ban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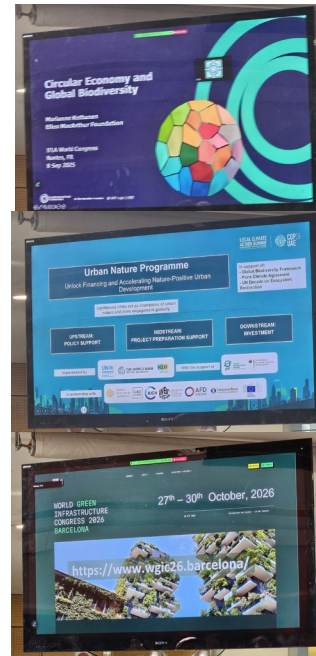
Green Infrastructure(World Green Infrastructure Network)

기후위기 대응으로 정원도시(Garden City) 전략은 찾아보기 어려움

정원都市는 글로벌한 전략이기 보다 한국적 상황의 로컬한 대응 전략임

19세기 태동한 하워드나 모리스의 정원도시 개념과 간극이 있고

진화하고 토착화된 개념임



정원도시, 개념의 혼란과 가능성

'정원'은 생태, 문화, 삶을 잇는 매개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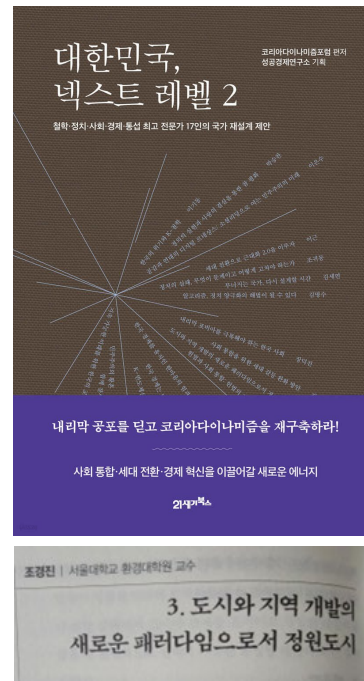
'정원도시'의 개념 - 여전히 진행중 - 현재로 조작적 정의

공원-법과 토지이용/도시숲-성격과 주체/정원-행위로 구분가능 그러나 서로 긴밀히 결합되어 있음

'정원도시'는 이를 포괄하는 '지속가능 도시' '생태도시' '녹색도시' '회복탄력 도시' 등과 유사개념이지만 시민들의 참여와 문화적 감성을 중시하는 성격 차이가 있음

'정원도시'란 생태적 원칙을 통해 자연과 도시 환경을 조화롭게 통합하고, 기후 변화에 대처하고, 쇠퇴하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도시를 개조하기 위한 포괄적인 접근방법을 통칭한다

"정원都市는 현재 도시가 직면한 두 가지 주요 과제인 기후변화 대응과 쇠퇴 지역을 살리는 해법을 제시해 줄 것이다"



한국의 정원도시 부흥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정원도시 추진현황

현재 60개 지자체가 정원도시를 표방하고 정책추진(최근 춘천 호수지방정원 조성 추진)

정원도시 열망을 이루게 한 동력은 법제도 토대 마련

2008년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2015년 국가정원 지정(매년 정부 예산 지원)

2025년부터는 산림청이 정원도시 지정하여 지원 추진
해남군 시범사업 이후 인천 / 대전 (서구, 유성구)/세종
/ 전라남도 / 충주 / 전주

일부 지자체 정원도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순천/진주/광명/청주/세종/인천 서구/제주도 등



정원도시 성과와 한계는 그리고 문제의 원인?

확산은 있었지만 시민참여와 설계 수준은 부족

성과 - 녹색 인프라 확충, 녹색 서비스 제공, 시민 행복과 생활복지 관심

한계 - 시설 위주 사업, 인위적 조성으로 자연 보존 배려가 적음

문제의 원인

하나. 공공이 주도하면서 민간부문과 시민참여가 미약

둘. 하드웨어 공간조성 중심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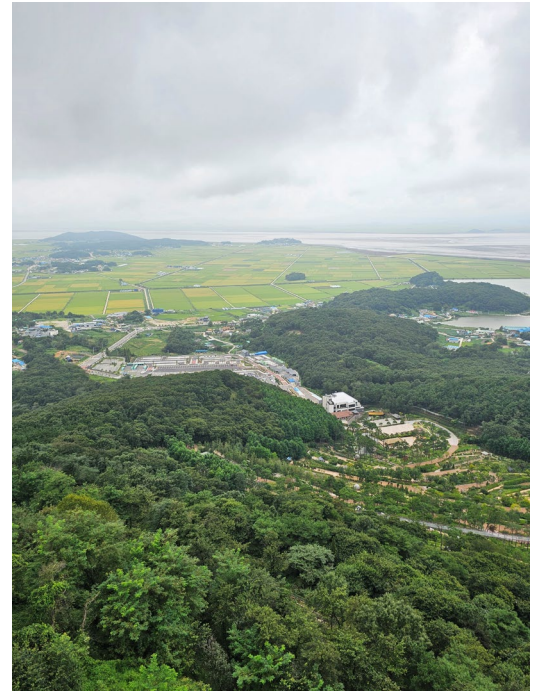
(지방정원 조성을 통한 국가정원 지정 추진)

셋. 유사한 해법 중심(국제정원박람회 유치/차별화된 정원박람회가 부재)

넷. 조성 용지 부족(하천이나 녹지에 조성 - 공원/도시자연공원에 조성 불가)

*서울숲에는 공원에 NGO 주도로 민간기업 20여개 정원조성

다섯. 설계의 수준 제고 필요 (설계공모제도 도입이 필요)



강화 교동도 화개정원

정원도시 발전을 위한 제안

'정원도시'에 관심을 좋은 지렛대로 활용, 기후적응 전략과 연계하여 심화발전

정원도시 '개념과 방향'에 관한 숙고와 재정의가 필요

정원도시포럼의 '선언과 조문'은 여전히 유효

확장적인 개념과 전략적 차원의 정원도시 정책이 필요(서울시의 경우 '정원도시국' 2024)

파리와 베를린은 기후위기시대의 녹지전환의 모델

파리시 - 환경시장 이달고 시장의 적극적 기후위기 대응 도시정책

베를린시 - 환경정보 축적과 과학적 접근으로 기후위기모델 결과를 녹지정책에 반영

개념과 방향1, 정원을 재정의하다

정원을 인위적 조작을 넘어서 자연생태, 인문역사, 생활문화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하자

'수목원정원법'의 정원 정의: "식물, 토석, 시설물 등을 전시 배치하거나 재배 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 공간"
'국가인문정원' 구상연구(전북연구원, 2024)에서 정원 개념의 재정의

정원을 가꾸는 것은 자연과 문화유산, 농사와 어업 생산경관을 보존하고 존중하는 데에서 시작한다

정원의 핵심은 가꾸는 것이다. 정원을 통하여 사람이 성장하는 것이다

"원림 조성은 일종의 생명 활동이다.

원림을 조성하고 원림에 거주하는 사람은

원림과 함께 성장하며 발전한다"

왕수, 집을 짓다, 2016



개념과 방향2, 정원도시 철학을 세우다

정원은 선택과 배제의 장소가 아닌 공동체 공유의 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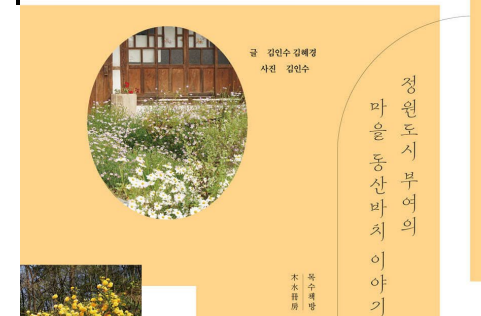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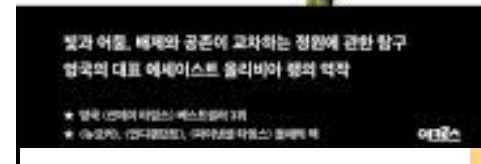
“정원은 사적이고, 친밀하고, 무척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활짝 열린 곳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더욱 야생적이고, 풍성하게 운영되는 각각의 정원은 더욱 큰 네트워크의 일부가 된다. 이 네트워크는 수많은 손이 다 같이 만든 킬트, 제각각 다르지만 전부 생태계를 유지하고 지탱하는 정원과 공원, 텃밭, 발코니, 길가를 아우르며 도시와 마을을 뒤덮는 킬트이다...정원이 개인의 영역이 아니라 모두가 중요하게 지키는 공공 재산이 되어야 하는 동시에 창의력을 꽃피울 수 있는 친밀하고 자유로운 특성을 그대로 가져야 한다”

올리비아 랭(2025) 정원의 기쁨과 슬픔

“소박하고 아름다운 동네 동산바치들의 비밀정원으로부터 21세기 정원문화가 새롭고 의미 있는 정원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

김인수(2022) 정원도시 부여의 마을동산바치의 이야기

정원도시론의 필요 기존 미학과 사상을 중시하는 한국정원론을 넘어서 생태 기술과 사회적 연대를 중시하는 기후위기 시대의 적합한 담론과 실천이 요구



선언과 조문1, 정원도시포럼(2021)

“우리는 자연을 존중하며 공생하는 태도로 삶의 터전을 지켜왔다. 개발 중심의 도시화로 자연은 파괴되고 공간과 경제의 불평등은 심화되었다. 전 지구가 함께 직면한 기후 위기는 새로운 해법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자연의 질서를 존중하며 생태문명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정원도시는 자연과 관계 맺으며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회복탄력성, 포용과 평등, 참여와 공유를 지향한다. 화석연료시대와 결별을 선언하고 탄소제로와 자족적인 그린 에너지 활용을 추구한다.

정원은 자연과 사람, 도시와 커뮤니티를 유기적으로 연결해주는 매개체이다. 궁극적으로 21세기 정원도시는 건강한 삶을 유지하며 성찰하는 토대가 된다.

지속가능한 삶의 터전인 정원도시를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사명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



선언과 조문2: 정원도시포럼 정원도시 10가지 원칙(2021)

Infrastructure



1 땅의 질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경관 계획을 수립한다

미래 세대에 물려줄 자산가치로서 경관을 평가하고
땅의 고유한 특성을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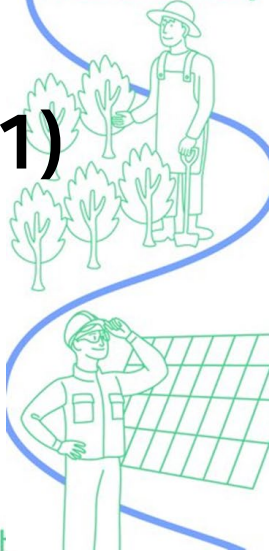
2 그린·블루 인프라를 통해 휴먼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숲길과 물길로 이어지는 생태적인 도시시스템과 친환경보행체계를
통해 순환도시의 기틀을 마련한다

3 재생 에너지와 그린 모빌리티와 같은 스마트 그린 인프라를 구축한다

재생에너지활용, 제로에너지빌딩, 녹색교통 시스템 등
탄소 제로 에너지 자립을 위한 도시계획을 수립한다

Community



4 지역과 상생하고 사람과 지역을 잇는 토대를 만든다

주변 지역자원을 조사·분석하여 정원도시와 연계하고
시민주도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5 새로운 녹색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한다

조성, 운영, 교육, 치유, 관광 등 정원을 기반으로 한 산업생태계를 조직하여
소득 창출의 기반을 마련한다

6 도시의 자원과 기회가 모두에게 열려있는 평등한 사회를 지향한다

도시기반의 공공성을 바탕으로 보편적 접근성과 성장을 공유하고
협치와 참여를 기조로 삼는다

Lifestyle



7 다양한 문화예술을 창작하고 향유한다

창의적인 인재를 유치하고 시민의 문화향유권과
다양성이 존중받는 문화환경을 구축한다

8 걷기를 즐기고 건강한 야외활동을 일상화한다

누구나 편하게 걷고 야외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건강한 삶을 지속하게 한다

9 주거 환경을 직접 가꾸며 돌봄의 가치를 공유한다

가까운 곳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관리와
돌봄을 통해 정원의 가치를 향유한다

10 지역성을 기반으로 한 풍부한 먹거리와 볼거리를 즐긴다

지역 특산물이 중심이 되는 로컬푸드를 개발하고
교류를 통해 산업과 문화로 확장 한다

조문



사례1, 파리시 기후대응 도시전략과 도시 정원

파리의 이달고 시장(2014-2026)의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 도시개조 추진

“파리를 숨쉬게 하라” 선언 이후, 대규모 상젤리제 거리 등 도시 곳곳을 정원화 추진

도시숲과 정원을 생물다양성 구현 차원에서 추진(2050 생물다양성 계획 수립)

6000개 도로 중 약 220개는 정원도로로 전환

자동차 교통량 40%감소 자전거도로 540km가 늘어남

2014년부터 10년 동안 약 855건 도심 녹색정원 조성사업이 주민참여 예산으로 추진

도시농업과 옥상정원 적극 장려(폐선부지와 바스티유 오페라 옥상)

도시숲 조성사례(파리시청사 광장 - 파리 테러 광장 - 카탈루냐 광장 - 네이션 광장 등)

2025년 센 강변 3곳에서 수영할 수 있는 구역 시범 운영



시청사/건축박물관 정원전시/페션부지 도시농업
네이션 광장숲/바스티유오페라옥상정원/2015파리테러추모정원

사례2, 베를린시 기후대응 도시전략과 도시숲

기후모델분석 결과 모자이크 도시 녹지 개념이 유효함

도시 전역에 1-2ha 녹지가 생활반경 300-1200m 에 조성되어 있을 경우

기후조절 기능이 가장 최적화됨 (동시에 형평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함)

(Cecil Konijnendijk의 도시숲 3-30-300 개념의 유효함-집에서 최소 3그루의 나무를 볼 수 있고, 동네가 30%이상의 나무 숲으로 덮여 있고, 공원이나 녹지공간에서 300m 이내에 거주)

“최근 베를린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녹지의 기능을 ‘기후 조절 인프라’로 재정의하고, 스펀지 시티 개념을 도입해 물순환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고정희 박사는 “대규모 숲이나 공원만으로는 기후 조절 효과가 한계가 있다”며 “도시 전역에 축구장 하나 정도의 1~2헥타르 규모 녹지를 약 500m 간격으로 배치하는 ‘전략적 시티스케이프’가 추진되고 있으며, 모자이크 방식으로 개별 녹지 개념을 세분화해 각 성격에 맞는 조치를 목록화했다”고 말했다.”

환경과 조경, 2025/9/21, “한국 조경의 길, 베를린의 150년 녹지 전략에 묻다”

한국조경학회 2025/9/19 온라인 심포지움 - 고정희 “백년의 고독: 베를린 녹지 체계와 정책”

대안1, 정원도시 발전방안 (in box 접근법)

인프라에서 문화와 참여로 확장

정원도시 방향 설정(자연 중시)과 지역적 여건 고려(자연환경과 인문환경 등)

정원도시 전략 다각화 - 정원박람회 유치/지방정원 조성에서 탈피

기존 정원도시 연구가 제안하는 유형별 적극 수용

(2022년 '정원도시 지정을 위한 인프라 구축연구'- 확장형(확장/연계)/활력형(도시재생/활성화)/진흥형(농어촌/도시권역)/특수융합형)

하드웨어(공간 조성)보다는 소프트웨어 접근의 중시(식물/사람/생태문화자원 등)

사례 - 제주도 정원도시계획

런던 국립공원도시운동



대안2, 정원도시 발전방안(out box 접근법) 도시발전 전략으로 위상 제고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여 대담하게 도시숲과 정원을 늘여야 한다
도시숲길/정원도로 - 자동차 중심 도시에서 벗어나 친환경 교통방식으로 걷는 도시로 전환
도시 미래비전 전략과 연계 - 지자체 핵심사업과 결합, 도시계획/기후행동계획 등
사례 - 2025년 파리시 주민투표를 통한 지지확보(66%). 향후 500곳 차 없는 거리 조성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여러 부처), 기후환경에너지부 재편이 새로운 기회일 수 있음
'정원도시'는 공원, 도시숲, 산, 하천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을 이해 추진
정원도시 구현을 위해 '녹색기반 기본법' 제정하여 통합관리 추진
향후 '녹색기반(그린인프라) 위원회' - 산, 하천, 공원, 녹지, 정원 등을 통합조정운영
사례 - 2025년 싱가포르 \$510m 그린인프라 펀드 마련(에너지/녹색교통/수자원/녹지 확보)

마치며, '정원도시'의 매력과 가능성

정원도시 개념은 정책과 실무에서 풍부한 가능성에 있다.

'정원'이라는 개념은 시민들과 쉽게 소통하고, 다양한 인문 예술문화 영역과 친근성이 있다.

도시의 환경적 이슈, 사회적 이슈(소외, 연대, 디지털 중독) 등을 풀어낼 수 있는 곳이 '정원'이다.

'정원'은 자연과 사람을 동시에 존중하고 고려한다.

자연기반해법과 도시숲 보전 등을 '정원도시'로 풀어낼 수 있다.

숲은 보존 중심, 자연기반해법에는 사람의 존재와 문화와 연계도 미약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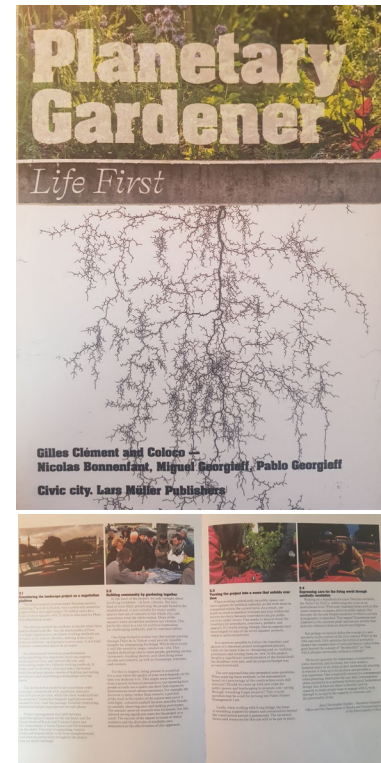
정원도시를 고유한 맥락에서 잘 만들어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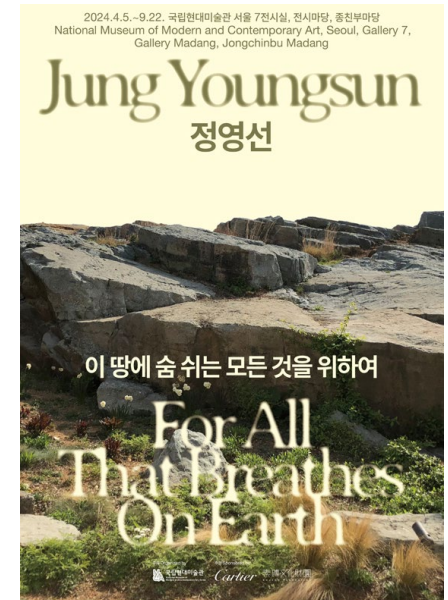
한국형이지만 세계로 전파할 수는 가능성도 열려 있다.

*질 클레망(Gilles Clement)의

지구정원사(Planetary Gardener) 이론은 실천 해법을 제시

1. 프로젝트 협상 플랫폼 2. 가드닝 커뮤니티 형성 3. 시간과 기다림 4. 돌봄과 미학적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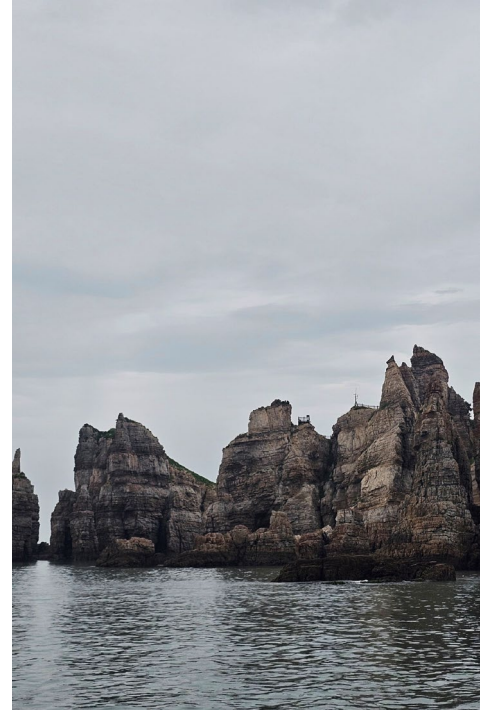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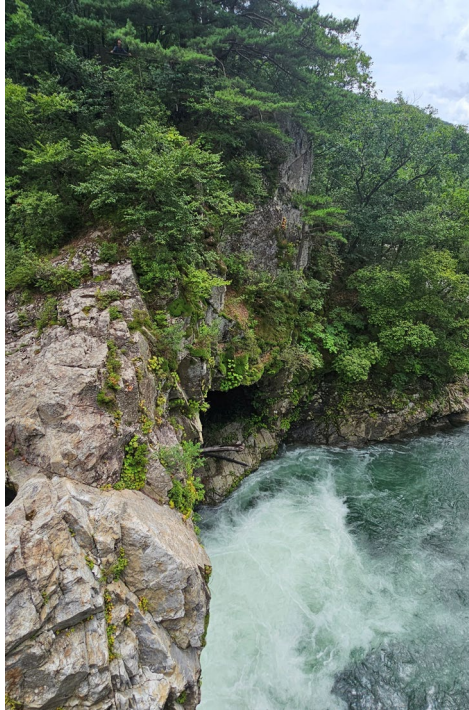




"국토가 정원이다"

"우리 국토가 이미 하나의 정원이다. 비록 지금은 지나친 난개발로 아파트 공화국이 됐지만 여전히 손바닥만큼 작은 정원에서부터 국립공원까지, 혹은 우리나라 섬 전체를 보살피고 보호하고 다듬는 것을 우리의 일이다"

정영선(2024)



“정원 국가로 가는 길”

“삼천리 금수강산” – 국토의 정체성

산과 하천을 연결, 도시숲과 정원을 가꿈

풍부한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면서 회복력 있는
도시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회색 인프라에서
녹색 인프라로 전환해야 할 때이다.

**“정원도시는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국토 비전의 핵심 전략이다”**



원형공간

Stone Circle Formation

원형 공간은 두 개의 동원형 형태의 유구가 남아있다. 외부 원형은 지름 18m로, 24개의 돌무더기가 1~1.5m 간격을 두고 배치되어 있다. 내부 원형은 지름 4.5m이다.

이 원형의 구조물이 정확히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원형도의 정선제도의 완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The site includes the remains of two concentric circles made of stones. The outer circle has a diameter of 18 m and is composed of 24 separate piles of stones set 1 to 1.5 m apart. The inner circle is 4.5 m in diameter.

Although no one knows exactly what this circular structure was intended to represent, it is generally believed that it has something to do with Yun Seon-deok's philosophical ideas.